

신앙란 예배
천국입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노이다
(시편 131: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대한예수교장로회 충청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5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깨어, 이 말씀을 들으라! (금요집회)

시간



시간이란 따로 신비 중에 신비라 할 수 있다. 인간은 시계를 쓰는 것을 이용하여 시간을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은 과연 무엇을 측정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지금 말하고 또한 사용하고 있는 이 시간의 개념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빛의 속도와 관련해서 쓰이고 있다. 우리 모두가 공통된 시간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경험은 각각 다른 것이다. 수많은 과학자들은 우주의 비밀을 발견하면 할수록 그 신비함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한다. 이토록 거대하고 상상울 초월하는 우주만물을 통해 아무 것도 없는 데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때에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의 신비함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

성경에서 보여 주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개념과는 아주 많이 다른 것을 깨닫게 된다. 모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한 시점을 인간은 긴 시간을 합친 것으로 본다(시 90:3-4). 또한 하나님의 영원을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벧후 3:8). 이 말씀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나님은 한 순간을 영원으로 표현하시며 또 영원도 한 순간으로 보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곧 영원 안에 계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출 3:14)라고 하신다. 현재형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요 8:58; 요 18:6; 요 13:8). 하나님의 다차원적인 영원에서의 끝은 곧 시작과 같은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체적인 시간을 보시고 가설 주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주인이시다(제 22:13; 딤후 1:17; 미 5:2; 사 44:3).

하나님은 또한 모든 세대, 곧 가고 오는 세대를 다 보실 뿐만 아니라 그는 먼 훗날의 일을 간박한 일로 보신다(이 1:4-5, 13).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경고한다(요일 2:25, 28). 재림을 관한 것이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쓰여졌지만 310, 12-13; 약 5:8). 간직함을 설명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번에 보시는 하나님이다(시 90:1-2).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시간과는 다르게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시간 속에 속해 있다. 우리의 모든 "지금, 현재"가 합쳐져서 역사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사건 하나하나가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역사와 관계가 된다(골 1:13-17). 다시 돌아오고 돌아가는 중복된 것이 아니다. 허망 사상이나 한두순간에서는 시간을 끌어 붙이 돌아간다고 믿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란 끝없는 시간의 쳇바퀴 속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시간과 역사는 이와는 정반대로, 시작에서 끝으로 움직이는 것이다(골 3:20-21). 한 시간의 흐름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있을 역사의 정점을 향하여 시간은 계속하여 가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라고 하시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전 3:11; 전 12:13-14). 많은 인간들이 이 영원성을 부인하고 억제하려고 하지만 그들의 가슴 깊은 곳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 다양한 문화와 예술 속에 그러그리 표현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모하는 마음(욕망)은 신비한 경험인 악물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려고도 한다. 영원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을 말하여 주고 있는가? 시작도 끝도 없는 곧 시간이 없는 상태(Timelessness)를 말하는 것일까?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에게 장래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와 한 부분이고 피조물은 그 안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이 시간과 영원 사이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딤후 6:15-16).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단원성의 시간 곧 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닌 다원성의 시간 안에 있게 될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우리의 삶을 대하고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할 것 없이 적고 미련한 일을 볼 때에도 영원의 시간 속에서 보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영영 죽지 않을 것처럼 미련하게 살지만 모세는 이것을 보았고 또 알아서 인간의 삶의 그 짚음을 하

님의 영원성에 비교하여 풀의 꽃으로 설명해 주었다(시 90:5-6). 궁극적인 삶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모든 일을 관할할 때에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이 영생의 개념은 큰 위로를 준다(고후 4:17-18; 롬 8:18).

그리스도인들은 시간 범위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 지배를 받을 필요가 있다. 성경은 시간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엢 5:15-17).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에 충실할 것을 말해 준다(마 6:34). 참으로 구원의 날이 중요하다(고후 6:2).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진 시간은 "지금, 현재"뿐이다. 이 "지금, 현재"가 항상 "영원"과 직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되어서는 모든 일의 과정에서 늘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중요하다. 천당과 목적이 지나치게 강조될 때 과잉된 것을 기억해야 한다. 계획과 목적이 지나치게 강조될 때 우리가 치해 있는 현재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 야고보는 매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계획을 앞에 놓는 것에 대한 위험을 깨닫고 강조한다(약 4:13-15). 계획과 목적이 필요한 것은 의심할 여지없다. 그러나 이 목적과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올바른 견해에서 서서 설정되어야 한다.

시간은 아주 소중한 것이므로 잘 사용해야 한다. 허비해서는 안 된다(잠 20:13). 시간은 싸야만 한다. 저장해 놓을 수가 없다. 우리는 주님의 강림이 가까움을 간박함으로느 깨야 한다(약 5:8; 벧전 4:7; 롬 13:11-12).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조금도 촉박해 하시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고 시간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다 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신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일을 다 하신 후에 말씀하신다(요 17:4-5). 바울도 고백한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딤후 4:7). 우리의 인생은 짧고 시간은 빠르게 가다. 그러니 이 시간을 하나님께 있어서의 지나쳐 버리는 시간인 아닌 것이다. 영영히 있는 시간이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의 영원하신 안에 있는 줄 알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쉬을 얻을 수가 있다. 하나님은 결코 조금하시지 않다.

십자가 길을 위한 첫 걸음, 세례!

세례는 신자에게 있어 참으로 중요한 예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식 차원을 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고(엢 4:5), 그리스도로써 믿음으로(골 3:27),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되는 권세(요 1:12)를 얻을 수 있는 은총의 표(골 4:11)가 됩니다. 결국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은총을 받습니다(갈 4:7). 그래서 교회에 등록한 새신자들은 6개월간 새가족 양육 과정을 수료한 뒤 최종적으로 학습 및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학습은 만 14세 이상, 교회 등록 후 6개월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는 만 14세 이상, 학습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아세례를 통한 입교와 개종도 있습니다.

교회는 1년에 6차례 짝수 달 첫째 주일 찬양 예배 시에 학습·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새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 길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림을 받아(골 2:20) 그리스도와 한 몸(골 3:15)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의 선물입니다(딤후 2:8). 세례의 참 뜻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학습·세례 교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학습·세례식이 다음주일(28일)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교육에 필히 참여해 주시고 한 주간 기도로 온전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밀림이라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벧전 3:21).

(*학습·세례 교육 내용은 8면을 참조하십시오.)

FAITH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Ephesians 2:8)***

Today's Bible verse says that God's grace brings salvation through faith. Faith, like grace and salvation, is a gift of God. This gift is something you receive from God, not something you can earn or make yourself. When you receive faith, you have amazing joy, deep peace, and wonderful hope. 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ossessions of a believer. Through your faith, you know the love of God. In the greeting of Peter's second letter, he addresses it to "those who have received a faith of the same kind as ours" (2 Pet. 1:1). Faith is something received freely from God by all believers. The Holy Spirit even enhances this gift to some (1 Cor. 12:9). As a believer, how you handle your precious faith is very important.

You need to hold on tightly to your faith. Paul told Timothy, "...some have rejected and suffered shipwreck in regard to their faith" (1 Tim. 1:19). The enemy desperately tries to ruin your faith. Your adversaries want you to fail. On Sundays, after you have heard a nice Sunday sermon to help you through the week, as soon as something happens you forget it. You need to realize this, so that you can firmly hold on to your faith, "For this reason we must pay much closer attention to what we have heard, so that we do not drift away from it" (Heb. 2:1).

You need to use your faith. Jesus told His disciples, "Have faith in God" (Mk. 11:22). You have to believe and trust God with your whole heart. So often, people question why God has done this or that, or why God made this or that. Their lines of inquiry into God's reasons are usually negative, and lead them away from the truth. In dealing with difficult, sad, or unfamiliar situations, you must use your faith. When you use it, faith works. You can walk on water! Remember that little David beat big Goliath. He did not hesitate to beat the giant; he ran to meet him. Using your faith is essential to victory.

You need to fight for the faith. Jude 3 says, "I felt the necessity to write to you appealing that you contend earnestly for the faith which was once for all handed down to the saints." You have to stand up and earnestly agonize for the body of truth. Paul instructed Timothy, "Fight the good fight of faith; take hold of the eternal life to which you were called, and you made the good confession in the presence of many witnesses" (1 Tim. 6:12). Your enemies are the demonic hosts of Satan, always assembled for mortal combat. Ephesians 6:12 says, "For our struggle is not against flesh and blood, but against the rulers, against the powers, against the world forces of this darkness, against the spiritual forces of wickedness in the heavenly places." All who live by faith will be persecuted (2 Tim.

3:12), but need not be defeated. Paul testified,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finished the course, I have kept the faith" (2 Tim. 4:7).

You have to follow in the footsteps of those who kept the faith, "Remember those who led you, who spoke the word of God to you; and considering the result of their conduct, imitate their faith" (Heb. 13:7). Jesus said,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Mt. 4:19). He also said, "If anyone wishes to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k. 8:34). Following God's faithful servants develops your faith. Paul was able to mentor Timothy, teaching him, "For the love of money is a root of all sorts of evil, and some by longing for it have wandered away from the faith and pierced themselves with many griefs. But flee from these things, you man of God, and pursue righteousness, godliness, faith, love, perseverance and gentleness" because he followed Jesus (1 Tim. 6:10&11).

You need to pray with faith. Mark 11:24 says, "Therefore I say to you, all things for which you pray and ask, believe that you have received them, and they will be granted you." Never doubt God's power and promises, just believe in them. Praying in faith is so powerful, "and the prayer offered in faith will restore the one who is sick, and the Lord will raise him up, and if he has committed sins, they will be forgiven him" (Jas. 5:15). Please do not complain and argue with life's circumstances, but pray in faith. If you fill your daily life with criticism, grumbling, and whining, then you have no faith at all. If the little things bring out the worst in you, then there is the proof of your lack of faith and possession of your own desires.

You have to build-up your spiritual life upon the foundation of faith. Jude 20,21 says, "But you, beloved, building yourselves up on your most holy faith, praying in the Holy Spirit, keep yourselves in the love of God, waiting anxiously for the mercy of our Lord Jesus Christ to eternal life." When your faith increases, anything that happens to you, you can appreciate. This means that whether things are up or down, you can explain and handle them by faith. You can sing, pray, teach, and worship on a daily basis. As your faith strengthens through practice, you can witness to your friends, neighbors, and even to the remotest parts of the world.

My dear friend, faith is a priceless treasure. Please hold on to it, and use it for everything. Fight for it with all your strength. Follow the footsteps of the faithful, and pray in faith everyday. The more you walk and pray in faith, the more your faith will grow. Go now, with the grace of God, in faith. Amen. 🙏

믿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엡 2:8)



김성관 목사

본문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믿음은 은혜나 구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값을 치르고 사거나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깊은 안식과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두 번째 편지에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벧후 1:1)라고 서두를 시작합니다. 믿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때때로 성령은 어떤 이들에게 좀더 강한 믿음을 주시기도 합니다(고전 12:9).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소중한 믿음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함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붙들어 매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처럼 말합니다. “...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딤후 1:19).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칩니다. 우리의 대적은 우리가 패배하기만을 학수고대합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다음 한 주를 살아갈 동안 힘이 될 새로운 말씀을 듣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견고하게 서려면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찌니 혹 우리 떠내려갈까 염려하느니라”(히 2:1).

믿음으로 행해야 함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하나님을 믿으라”(막 11:22).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자주 하나님이나 왜 이렇게 하셨을까 혹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을까라는 식의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이유를 묻는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들은 그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살면서 힘들거나 슬프거나 예기치 않은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물 위에 걸터갈 수 있습니다! 어린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거인을 때려눕힐 때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달려가서 거인과 대면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함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유다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라”. 우리는 믿음 위에 목마로 서서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같이 권면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름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딤후 6:12). 우리의 적들은 사단의 악한 군대이며 이들은 언제든지 치열한 전투를 치를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해 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믿음으로 살고

자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딤후 3:12).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딤후 4:7).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함

우리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리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히 13:7).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마 4:19). 주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 8:34).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따라가다 보면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겠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들을 파괴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딤후 6:10,11).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나 약속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단지 있는 그대로 믿기만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찌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약 5:15).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불평하거나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저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만약 매일 일의 삶이 비판과 불평과 좌절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자신의 약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증거요 아직도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는 표시입니다.

믿음으로 세우는 삶

우리는 믿음의 반석 위에 영적인 인생을 건축해야 합니다. 유다서 20,21절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훈을 기다리라”.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히 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상황이 좋아지든지 나빠지든지 간에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가르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믿음이 강해지면 여러분은 친구와 이웃에게, 아니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값을 해라할 수 없는 보물입니다. 부디 그것을 꼭 붙들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온 힘을 다해 싸우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가며 매일 매일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며 걸어갈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걸어갑시다. 십자가의 은총에 힘입어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아멘.

망 끝에 나가 십자가를 전했던

어린 용사들이여!

선교의 작은 불씨, 21개 팀 217명의 중등부 단기 선교사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즘 십대들은 어른보다 더 바쁘다. 이른 아침부터 학교, 학원 등 잠시 쉴 틈도 없이 공부에 매달려 사는 것이 오늘날의 실체이다. 그런데 모든 삶의 초점을 자신에 게만 두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충현의 십대들은 달랐다. 아니, 십자가의 은총이 충현의 십대들을 세상의 십대들과 다르게 만들었다(고전 11:1). 학원도 중요하고,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하고, 자신의 미래도 중요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임을 이들은 깨달은 것이라고 고전 2:2.

특별히 중등부 학생들의 선교는 주님 보시기에 더욱 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갓 초등 학교를 졸업한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른도 하기 힘든 결정을 했다. 더군다나 이들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가 쉽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도 듣고 있었다. “공부도 해야 되고, 잔도 자야 되고, 놀아야 되고...”. 또래 친구들이 흔히 하는 것을 하고도 싶었지만, 이들은 주일뿐만 아니라 심지어 평일에도 선교를 준비하며 비자빔을 흘렸다. 이들의 중심에는 선교를 명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살아 움직였다(막 16:15). 그래서 비록 참가 힘들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었지만 CMC 훈련, 언어 훈련, 영상 훈련, 자체 기도회(기도원), 팀별 훈련 등 이들은 철저한 선교를 준비했다.

그리고 그들의 방학이 시작되었던 7월 말부터 현재까지 그들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망 끝을 향해 나아갔다. 성령의 불을 일으킨 선교의 작은 불씨, 영혼들을 향한 중등부 선교사들의 뜨거운 심장박동 소리를 들어 보자.

*중등 1부 (결국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기도였습니다!)

- 미소영:** 처음에는 친구들과 함께 가는 것이 마냥 좋았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했다는 즐거움이 저에게 있어서, 공인인 사는 집인 줄 모르고 전도하러 들어갔다 잡힐 뻔한 아슬아슬한 일도 있었지만 정말 좋았어요.
- 최용민:** 선교지의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아 속상했어요. 그래도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어요. “친구들아, 다음에는 꼭 같이 가자!”
- 김은혜:** 어떤 아버지께 전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기도하니까 됐어요. 정말로 놀라운 신기해!
- 김민하:**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른들께 쫓겨났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할 거예요.

*중등 2부 (아이들은 훌륭한 복음의 동역자였습니다!)

- 박성모:** 전도가 안 돼서 1분 동안 기도하고 다시 전도하니 30초 만에 영혼을 만나 전도할 수 있었어요.
- 이지영:**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한 아주머니가 남편 몰래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숨겨놓았던 성경책을 보여 주셨을 때 다들 놀랐어요.
- 문지영:** 열악한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한 영혼들을 보며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정말로 편하고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 안전하게 믿었던 저의 모습을 회개했어요.
- 김민주:**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전도를 할 때 말이 잘 통하지 않았는데 한 아이가 우리의 말을 전해 주고 또 아이들의 말을 통역해 주어서 전도를 할 수 있었어요. “친구들아 계속 기도하면 되니까 기도하자. 기도밖에 없다.”

*중등 3부 (기도하며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 미다영:**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몸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기도할 때 약간 형식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의 영혼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있습니다.

엄예은: 선교 중에 코피를 쏟았지만 전도하는데 더욱 힘을 쏟았습니다. 비록 내 몸이 약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 기뻐했습니다.

유재우: 감기 때문에 고생했지만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선교지에서 만났던 모든 영혼들의 얼굴이 아직도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정지현: 마지막 날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숙소로 돌아가는데 쌍무지개를 보았어요. ‘노아의 무지개 언약’.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는 주님의 사인 같았어요.

김태민: 선교에 앞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진짜 선교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미조한: 많이 통하지 않아도 이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친구들에게 더욱 열심히 전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린 저희들도 다다왔는데 걱정 마시고 가세요.” 중학교 1학년인 김한나 자매의 말이다. 중등부 선교는 이번이 처음이다. 단순히 선교지를 보고 오는 선교가 아니라 환경이 열악한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린 학생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겠지만 그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갔다. 직접 믿음으로 나갔다. 나아가 이들은 기도의 힘을 체험했다. 또한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했다.



“이제 단기 선교가 끝났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았고, 은혜로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선교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망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작은 힘을 모아 불쌍한 영혼들에게 십자가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조수빈, 중등2부)

보혈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선교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중에는 선교에 대해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가? 팔손이 님은 어르신들로부터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중학생들도 선교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아직도 핑계가 남아 있는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엡 2:1). 우리는 이미 사람이 선교된 자원이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다. 십자가가 이 연약의 종이 이 대를 58, 이 증표가 마음에 새겨져 있는가? 그렇다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무엇이 어려웠는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 중학교 2학년인 성다영 자매는 말한다.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요.”

“...내 아버지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재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마 26:42).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간 선교지는 비교적 선교 활동이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한편, 다른 잘못된 종교도 분별하지 못하여 영적 싸움이 치열한 곳입니다. 이 나라는 약 860개나 되는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이들은 각 부족별로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부나 경찰 모두 자신의 부족 언어를 사용하는 이질감만 감싸는 식의 폐단을 낳기 때문에 특히 치안과 범죄가 심각한 곳입니다.

이 곳에는 복음을 들어 보지 못한 부족이 수없이 많으며, 복음을 접했다 해도 토속 신앙과 겹목되어 이상한 종교로 변질되거나, 이단들이 퍼져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이것이 이단임을 알지 못하는 영적 어둠에 있습니다. 지에게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오직 한 분이시며, 그분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부족 마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각 부족의 문화적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어떠한 통신 시설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일 관할자를 만나지 못하면 다른 시간에 다시 찾아가야 했습니다. 게다가 허락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지정한 준 집에만 들어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번은 부족 관할자

의 허락을 받아놓았다가도 말이 달라져서 그 마을에 들어갈 수 없어 낙심하고 돌아선 적도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관할 밖의 유동 인구가 많은 시장 주변에서 노방 전도를 통하여 오히려 소외된 계층, 복음을 들어 보지도 못한 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예수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이 먼 곳까지 왜 왔겠느냐고 말하며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그 복음에 정말 감사를 했습니다. 사람의 계획과는 다르게 움직이시는 성령님을 체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니다.

"Jesus died on the cross for our sins."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에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곳까지 왔구나. 나는 한 지체의 신앙의 고백은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니다."

하늘이 정말 파란다는 것을 그곳에서 처음 느꼈고, 눈부신 별들이 밤 하늘을 꼭 채울 수 있다는 것 또한 처음 느꼈고, 땅의 나무들이 주님 지으신 푸르른 세계라는 것을 처음 느꼈고, 그만큼 아름다운 자연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 창조하신 사람들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만, 가슴으로 느끼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정말 많이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이 모든 것 깨닫게 하신 주님의 사랑,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박연미 (대학부)

성령의 인도하심

선교 가기 전 선교지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을 들었기에 출발 일자가 다가올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으나 출발 3일 전 금요일에 시 주신 말씀(사 41:10)을 통해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공항에 도착 후 승합차로 6시간 가량 500km를 북쪽으로 달려서 저녁 무렵 선교지에 도착하기에 본격적인 사역은 이른날부터 이루어졌다.

한국에서 외운 서론 전도 문장만으로도 제대로 선교 사역이 이루어졌지 미지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팀원들을 사용하셔서 현지인들이 우리의 복음 증거에 귀 기울이게 하셨다. 첫날의 사역이 예상 외로 성공적이었다는 기쁨과 함께 둘째 날 사역을 나갔는데 이상하게도 내가 만난 현지인들의 반응은 냉담했고 무엇보다 내가 전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첫날과는 너무나 다른 현지인들의 반응에 나는 기가 격었고 나는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였지만 도무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다.

셋째 날 아침 경건회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실패의 원인을 깨달았다. 사역 첫째 날 현지인들이 서론 나의 언어를 알아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데 그것이 마냥 나의 능력인 것으로 착각하고 마음이 고만해져 복음 증거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며 한 영혼 한 영혼에 다가가 때마다 내가 어둠한 말로 전도하는 것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게 해 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갔는데, 결과는 첫째 날처럼 기대 이상으로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셨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여러 가치를 정리해 보았다. 지금까지 17년간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전도한 사람보다 단기 선교 6일 동안 전도한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것이 무척 하나님께 죄송스러웠고, 함께 간 고동부 팀원들을 통해 나의 부족



함과 죄악됨을 알게 하시고 회개토록 하신 것이 사무치도록 감사했다.

처음 나간 단기 선교를 통해 선교에 대해 감동된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삶의 방향을 다시 정립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동준 (집사, 고동부 교사)

▲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8월 15일(월)~8월 23일(화)	대학부(30)	조종선	8월 18일(월)~8월 26일(금)	11고구 추가2	전진국
8월 17일(수)~8월 25일(목)	합동부(21)	표영희	8월 19일(금)~8월 27일(토)	대학부 추가	김형곤

하루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곳 사람들은 정말 순수했다. 하지만 이곳도 부유하고 지식층이 사는 도시의 사람들은 그들의 지식과 재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는지, 또한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소외되고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정말 산골짜기의 마을이나 외딴 집 사람들은 우리들을 반갑게 맞이해주었다. 우리의 언어를 모두 알아 듣지는 못하였지만 끝까지 들어 주었고 몇몇 분들은 눈물까지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이 임하였을 때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각 나라 사람들이 그들의 각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놀라는 장면이 있다. 이를 또한 그러했다. 공간에 우리들에 대한 신교가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또 한 번 우리를 놀리셨다. 우리의 연합함을 아시고 공안을 우리의 경호원으로 바꾸어 주셨다. 그 공안은 우리를 따라다니며 우리의 행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시는 두근두근 집에서 보고 싶다며 우리의 모습을 컴퓨터로 담았다. 그것도 부족해 전도까지 많이 행해 가지고 갔다. 주위 사람들에게 주고 싶다고, 그는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될 것이다. 정말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주시지도 줄지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말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제 돌아왔으니 우리나라에서도 열심히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다.

이수진 (집사, 청년2부)

▲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간	팀	팀장
8월 22일(월)~8월 30일(화)	소망부(2)	한만교

▲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8월 6일(토)~8월 15일(월)	5고구 6지역	김달현	8월 10일(수)~8월 19일(금)	17고구 5지역	송영준
8월 8일(월)~8월 15일(월)	대학부(40)	이양호	8월 11일(목)~8월 19일(토)	2고구 추가	이영현
8월 8일(월)~8월 15일(월)	11고구 2지역	김정환	8월 11일(목)~8월 19일(토)	18고구 4지역	김태영
8월 8일(월)~8월 15일(월)	12고구 추가	윤우선	8월 11일(목)~8월 19일(토)	대학부(33)	김은철
8월 8일(월)~8월 16일(화)	11고구 5지역	박호영	8월 11일(목)~8월 19일(토)	대학부(34)	박민호
8월 8일(월)~8월 17일(수)	18고구 5지역	이영민	8월 11일(목)~8월 19일(토)	대학부(38)	윤성열
8월 8일(월)~8월 17일(수)	7고구 추가	박영근	8월 12일(금)~8월 17일(수)	중동3부(7)	문용우
8월 8일(월)~8월 17일(수)	7고구 추가	윤순원	8월 12일(금)~8월 17일(수)	중동3부(8)	양호민
8월 8일(월)~8월 19일(금)	3고구 추가	김국진	8월 12일(금)~8월 18일(목)	청년1(5)	강현식
8월 9일(화)~8월 15일(월)	청년1(4)	이재호	8월 12일(금)~8월 20일(토)	4고구 8지역	박우현
8월 9일(화)~8월 16일(화)	9고구 3지역	이상복	8월 13일(토)~8월 19일(토)	청년1(6)	정금수
8월 9일(화)~8월 18일(목)	18고구 추가	전학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 18:1).

41년간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우리들에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셔서 할렐루야 찬양대로 봉사하게 인도하신 은혜에 죽는 날까지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찌라 할렐루야” (시 150:6).

이런 고백이 있기까지 저는 참으로 교만하며 헬기 내며 자만심으로 차 있었습니 다. 이제 이런 지난 날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주관하심보다는 나 자신의 지식, 경험, 재능, 사회 관계 등에 의존해 사회적 지위, 성공적인 직장생활, 부와 명예를 쫓았고 주님보다 세상 것들을 먼저 사랑했던 불충한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함니다.

금년 5월, 집 이사하는 일과 회사에서의 중요한 일때문에 20여 일을 뜬 눈으로 보내다시피하였을 때 왼쪽 목 밑이 송곳으로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진단 결과 악성 림프종(림프선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적인 고쳐에 힘써서 며칠 밤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처와 어린 자녀들 생각과 또한 8년간 붙임했던 생병보환도 4개월 가량 신경을 쓰지 못해 필요가 되어 하필이면 이때에 보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 등등...

그러나 곧 주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돈을 비롯하여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려고 막다른 골목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그리고 육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위에서 부족한 자를 위해 기도하시는 고마운 분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눈물로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고 아픈 이후에 다시 부여받은 생명은 목숨이다 하는 날까지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이 최우선인 삶을 살기를, 주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아멘.



박성근 (집사, 할렐루야 찬양대)

예수님의 은혜로

‘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가 아주 깊어 늘 이 고백을 가슴에 되새깁니다. 나 또한 그렇다. 누구나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 고백을 말로 표현하고 마음으로 느끼게 해 주시는 그 놀라운 특권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만의 큰 자랑일 것이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를 늘 반복한다. 내가 가진 것, 내 능력으로는 소년부 교사로 섬길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제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실수부수에 이르는 지식과 지혜가 많지 부족하다. 그런 내가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다. 절로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적 어머니가 아끼시던 거울을 깨고 나는 근심에 잠겼다. 그런데 어머니는 화내지 않으시고, 내가 다친 곳은 없는지 살피신 후에 많았이 꼭 안아 주셨다. 그 자상하고 포근하던 어머니의 향긋한 품... 난 지금도 잊지 못한다. 예수님은 내가 부족한 가운데 소년부 교사를 하는 동안 반복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어머니처럼 늘 안아 주신다.

나는 요사이 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생각에 잠긴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과거의 나처럼 어렵게 느끼는 학생은 없는지? 내가 처음 교회 문턱을 들어섰을 때 이색하고 당황했던 것처럼, 누군가 좀더 친절하게 교회 생활을 안내해주길 기대하진 않을까?

지난 날의 나를 떠올리고는 지금 내 곁에 있게 해 주신 값진 영혼들을 생각한다. 소년부의 많은 천사들에게 내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솔직히 많지 않다. 그러나 늘 풍성하게 채워 주시는 존귀한 그 이름, 예수님의 은혜로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는 있을 것이다.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던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내 손을 기꺼이 내밀고 싶다. 그리고 꼭 붙잡아 예수님이 이끄시는 천국과 구원의 길로 안내할 것이다. 예수님의 은혜로!



오남규 (소년부 교사)

비밀

나는 토요일마다 대학부에 출석하고 주일에는 중등 1부에서 봉사를 한다. 평일에는 집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자 노력하며 가끔 새벽기도회와 금요집회에도 나간다. 그래서 난 찬람은 줄 알았다. 내 신앙은 이 정도면 찬람이라고 생각했고 어떤 때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졌다고 자부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내 맘 속에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얻어지지 않는, 아니 오히려 더 넘치는 나의 죄악 때문에 괴롭기만 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었다. 하나의 죄악이 멈추는가 하면 또 다른 죄악이 날 괴롭히고 또 마음은 예수님의 집이 아니라 마치 전쟁터와 같았다.

이러한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셨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행 16:31). 나의 노력이 아니었다. 나의 공로도 나의 의도 아니었다. 주님은 단지 내가 예수님만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찌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찌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사 1:18). 나의 죄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깨끗해지는 데 내 내 힘으로 어떻게든 씻어보려 했던 것이야. 죄로 인해 얼룩지고 더러워진 나도 주님은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다시 부르셨다. 날 온전히 깨끗케 자유케 해 주시려고,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전하길 원하셔서 아직도 날 살아 남게 하신 것이다(벧전 2:9).

“예수님, 제가 이제까지 제 힘으로 살려 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님만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라인현 (대학부)

평생에

평생에 후회할 것만 하고 살았어도

당신을 만난 것만큼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단 한 가지 후회하지 않을 일이지요.

당신이 거지 나부랭이 같은 나에게 눈길을 주시고

내 이름을 불렀을 때 그 단 다리가 풀려 버렸지요.

다가와서 절망이라고 써 있는 내 얼굴을 보시고

가만히 어깨에 손을 얹어 위로해 준 일이 기억납니다.

어디서고 당신의 음성이 귓가를 맴돕니다.

“엄려하지 말아라.” “절망은 없다.”

날이 갈수록 삶의 소망이 없는 저였지만

당신을 알아가는 것으로 그 소망을 대신합니다.

주님이라 불러 보는 것이 감사해서

하루종일 입에 붙이고 살았습니다.

당신이 하신 말을 기억하고 싶었고 당신이 하신 것들을 따라하고 싶었습니다.

그 부드러운 손길과 다양한 눈으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저만 생각하고 살았던 제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지금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제가 낮아졌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지옥을 자정하셨고

내가 가장 최고였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영광을 누리입니다.

정말이지 당신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단 한 가지 아는 것은

평생에 당신을 만난 것은 후회 없는 유일한 사건이었습니다.

황정연 (청년1부)

교회 탐방 76 14교구 전도대

기도하고 단지 전했을 뿐인데...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는 우리가 먼저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을 안게 된다. 이러한 거룩한 부담을 안고서 매주 수요일마다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듣고 교회 주변을 전도하는 14교구 전도대를 만나 보았다.

14교구 전도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충천 전도훈련을 받은 10여 분의 14교구 권찰, 집사, 권사님들이 매주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함께 기도한 후에 1인 1조가 되어 배정받은 교회 주변으로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손선혜 집사)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하시나요?

죽고 전도입니다. 건물을 정하여 집집마다 혹은 사무실마다 방문하지요. 전에는 컷지만 지금은 안마사실나 호텔에도 복음을 들고 들어갑니다. (박경희 집사)

수요 전도를 하면서 이런저런 일이 많았을 텐데요?

죽고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 일을 겪습니다. 사실은 근무 시간이라 복음을 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도 담대에 들어간답니다. (한연숙 집사)
같은 장소를 한 번만 찾아가는 건 아니예요. 매주 기도하며 찾아가죠. 처음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만 3주째 기도하며 찾아가셨더니 문을 열어 주며 들어오라고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강복희 집사)

충천 전도훈련의 유익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항상 말씀을 들으며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온전히 부담감이 앞섰습니다. 그러다 전도훈련을 받고 보니 나는 단지 복음만 전하면 되고 열매를 맺으시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힘을 얻었지요. (최영진 집사)
저도 처음에는 결심에만 부담이 앞섰어요. 그러다 전도훈련을 통해 단지 우리는 전하는 자고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혜 집사)

전도하면서 감사했던 점은?

처음 노방전도를 나갈을 때 전도지를 받은 양 분이 교회에 어디가고 물을 때 기쁘고 힘이 났습니다. 또 가게에 전도지를 들고 들어갔을 때 가게 아르바이트 청년이 예배 시간을 물으며 교회에 참석하라고 의사를 비쳤을 때 감사했습니다.

(최순복 권찰)

가게에서 나오는 남자 분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전도지를 주었더니 마침 자신도 수요예배에 참석해 보고 싶었다고 하시면서 교회에 나오겠다고 하시더군요. 그 우 그분은 친구까지 모시고 와서 함께 등록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단지 전했을 뿐인데... (최영진 집사)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무신앙하는 게 너무나 싫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저에게 '문전박대'라는 기회를 주셔서 저의 자존심을 여지 없이 깨뜨려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연숙 집사)

매주 수요요일마다 지하에 사시는 한 할머니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불교를 신봉하셨던 할머니셨지만 지금은 교회에 등록해서 새가족부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계시죠. (손선혜 집사)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처음 우리 14교구에서 교회 주변 전도를 시작할 때에는 참석하는 성도들이 드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감으로 나갔다고 볼 수도 있었죠. 그러다 한두 분씩 전도훈련을 받으면서 복음 사역을 맡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운 집사)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전에는 임도와 두렵지만, 전하고 나면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은혜가 되어 힘이 생깁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요. 더 많은 교구 성도들이 이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손선혜 집사)

단기 선교를 다녔을 때 힘을 얻어 수요 전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14교구 전도대원들! 선교지보다 마음껏 복음을 듣고 전할 수 있는 우리나라이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구원의 복음을 먼저 깨닫게 해 주시고 복음 전파 사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편진실)

다음주일 397장 찬송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미국의 침례교 목사 존 헨리 예이트스(Rev. John Henry Yates, 1837~1900)가 1891년 작시하였고 같은 해 이라 데이빗 샌케이(Ira David Sankey, 1840~1908)가 작곡한 곡이다.

- 1절은 요한복음 5장 4절 말씀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기는 이 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을 향한 부단한 싸움의 연속임을 말하고 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는 길에는 보이는 싸움, 보이지 않는 싸움, 이기어 하는 싸움, 저자 승리하는 싸움, 싸움의 끝에는 다름이 아니라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데 있어서 어떤 싸움에나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믿음이다. 그 믿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요'(요일 5:5) 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할 것을 찬양한다.
- 후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2절은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 예수께서 6장 16~1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전신관주인 진리로 피를 흘리고서 주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온 인류 마귀 권세를 이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찬양한다.
- 3절은 원수를 이긴 자에게는 흰 옷을 준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흰 옷은 승리자가 입는 영광의 옷이다. 뿐만 아니라 천사를 앞세워 고백한 주의 이름을 하늘에서 알게 되리니 빛의 고지에서 전진하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은 사람으로 볼 것이며, 정복자 예수의 이름으로 범의 무리들을 모두 정복하리라고 한 내용의 담대한 찬송이다.

로마서 13:11~14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지나와 자다가 깨 팔면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정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길 원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 찬양을 힘 있게 부르는 충현의 모든 성도가 됩시다.

(현양위원회)

새·가·족·을·환·영·함·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451	이철수	9	장년1부	이준재(7)	2470	김영민	19	중동부	김재현(5)
2452	정인애	19	대학부	주은혜(10)	2471	김희현	19	장년1부	
2453	최희선	4	장년2부		2472	이경희	13	장년3부	최지훈(10)
2454	김지자	4	장년2부		2473	전혜복	7	장년2부	최순민(1)
2455	김태조	4	장년3부	박선혜(15)	2474	조정은	19	대학부	백민지(19)
2456	박옥희	4	장년3부	박선혜(15)	2475	김영규	13	소양부	최순혜(11)
2457	장정진	19	장년1부	조영재(12)	2476	정창일	1	장년1부	정경희(10)
2458	최희희	1	장년1부	박대근(7)	2477	류나리	19	대학부	김용선(8)
2459	한승협	1	장년2부		2478	전신애	19	외선부	김지훈(5)
2460	김은복	19	외선부	이현정(10)	2479	류사라	19	외선부	윤혜준(14)
2461	최훈경	6	장년1부	김성애(13)	2480	이준호	5	에디부	권은미(1)
2462	임소희	19	고등부	이경준(1)	2481	방명선	4	장년1부	이진규(8)
2463	정창민	8	장년1부	김재희(16)	2482	박수빈	19	장년1부	최무일(1)
2464	이경희	19	장년부		2483	박기하	19	장년1부	김영철(7)
2465	강성호	19	장년1부	윤정애(16)	2484	김재하	15	장년2부	송정애(7)
2466	정인애	19	장년1부	김규(8)	2485	김동훈	19	장년1부	이규우(2)
2467	오한호	19	대학부	오경숙(5)	2486	이소은	19	장년1부	
2468	김준고	11	소양부	정주영(11)	2487	이정현	19	대학부	이보현(16)
2469	최성근	11	소양부	정진원(11)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